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현황 및 요구 분석\*

조창빈\*\* · 김두영\*\*\*

단국대학교 · 단국대학교

### 《요약》

이 연구는 발달장애인들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지, 그 이용 현황과 향후 참여할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요구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정책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 607명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용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전체의 44.8%로 거의 절반에 가까웠고, 비참여 이유로는 정보부족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주로 장애인복지관에서 문화 예술교육과 기초문해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요구를 분석한 결과, 운영 기간은 1년 이상이, 주당 회수는 3회가, 하루 운영 시간은 5시간 이상이, 희망하는 기관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셋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할 것과 이를 위해 전문적인 인력의 배치를 요구했고, 중증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과 이들에 대한 교육적 대책 마련, 제공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성 등을 희망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구축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제어 : 발달장애인, 장애인 평생교육, 요구 분석

\* 이 연구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부모의 요구-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김두영 외, 2015)의 일부내용을 발췌하여 수정·재편한 것임.

\*\* 제 1저자,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whckdqls@naver.com)

\*\*\* 교신저자,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연구교수(kdy205@dankook.ac.kr)

## 1.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특수교육통계(교육부, 2011~2015)에 따르면, 고등학교와 전공과를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 중 진학 및 취업을 하지 못한 장애성인은 2011년 30.8%, 2012년 31.1%, 2013년 40.9%, 2014년 37.1%, 2015년 43.6%로 매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와 같이 비교적 장애 정도가 심각한 발달장애인의 경우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성인기에 고용의 획득과 유지를 위한 교육은 물론, 공식적 및 비공식적 교육기회가 매우 제한적인 가운데 통합된 지역사회에서 한 성인으로서 다양한 역할 수행이 요구되는 상황을 직면하게 된다(박승희, 2004).

이처럼 대부분의 발달장애인이 학교 졸업 이후 진학 또는 취업 등 진로를 획득하지 못하고 가정이나 시설로 되돌아가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들의 진로를 개발하고, 사회통합에 필요한 실질적인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고 원하는 학습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 평생교육이라고 한다면, 발달장애인에게 있어 평생학습권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 보장받아야 하는 자연권이자 기본권이라고 말할 수 있다(김경열, 2012). 특히 인지적 장애라는 특성을 지닌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은 생애 주기에 따른 교육 기회의 제공과 교육내용의 다양화를 통한 선택 영역의 확대 뿐 아니라 발달장애인이 살면서 마주치게 되는 생활상의 곤란을 극복하게 해주며 생활상의 자립을 실현시켜주는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지니고 있다(이창호, 2013).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이 일반인과 구별됨이 없이 존엄성을 인정받고, 적절한 평생교육을 받으면서 사회에 참여하여 만족할 만한 삶의 질을 향유해야 할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이를 보장하는 것은 이 시대의 책임이요 국가의 의무라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여기에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란 정신적·육체적 능력은 물론 그 외의 성별·종교·경제력·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교육을 받을 기회를 차별받지 않고, 즉 합리적 차별사유 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국민에게 균등한 교육을 받게 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가 실질적인 평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헌판집 제6권, 1994). 또한 여기에서 교육이란 학교교육으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교육을 포함하여 평생교육을 지칭하는 것이다(양수산, 김완진, 1998).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기본법」 제3조에서는 학습권을 명문화하고 있고, 「평생교육법」 제4조와 제5조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요구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김호연 외, 2014). 더 나아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3조와 제34조에서는 비교적 분명하게 장애인 평생교육 실시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은 특수교육과 소관이고 평생교육 시행 주체는 평생교육과 소관으로 분리되어 있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정책은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또한 2014년 5월 제정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평생교육의 지경을 발달장애인에게도 넓혀 적용하도록 기반을 조성해 놓았으나, 아직까지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당장 이용할 수 있는 지원서비스가 극도로 부족하다는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이 반드시 실천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와 흐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장애인들은 낮은 학습자에 불과해 보인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발달장애라는 장애유형의 특성 상 다른 장애유형과 달리 전 생애에 걸친 교육적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강동선, 신진숙, 2015; 유명해, 2009; 윤점룡 외, 2010), 주간보호시설이나 장애인복지관 등 발달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 관련 기관들의 수용 가능 인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이미정, 2015). 이는 발달장애인들이 대한민국 「헌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그리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명시한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평생교육의 권리’로부터 철저히 소외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발달장애인들에게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지금껏 받아왔던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현황을 파악하고 나아가 향후 받고자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분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기영화, 2001; 김진화, 2001). 학습자에 대한 요구 분석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타당성을 검증하는 단계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조창빈, 2014).

하지만 그 동안의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 실태 및 요구를 조사한 선행연구들(강순원 외, 2011; 김정재 외, 2009; 곽승철 외, 2010; 정인숙 외, 2005 등)은 다양한 장애유형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연구 대상에 발달장애인을 포함하지 않거나, 포함하더라도 그 수가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극히 적어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실태 및 요구를 적절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왔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에게 적절하고 효과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현황 및 요구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는 발달장애인들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고,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참여할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요구는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향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 2. 연구 문제

위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현황은 어떠한가?

둘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요구는 무엇인가?

셋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 II. 연구 방법

### 1. 조사 대상

이 연구는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현황 및 운영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기 위하여 2015년 6월부터 7월까지 2개월간에 걸쳐 서울지역의 발달장애인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자녀의 연령이 학령기인 경우와 성인기인 경우로 나누어 개발하였으며, 학령기 자녀 부모를 조사하기 위해 (사)함께 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와 각 지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부모회 가입 비율이 낮은 성인기 자녀 부모를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장애인복지관, 직업 재활시설, 주간보호시설, 장애인관련단체 등의 협조를 구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현황 및 운영에 대한 요구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나 연구대상의 거주지가 서울특별시로 한정되어 있는 점, 그리고 이용현황 조사 기간이 2개월간에 걸쳐 있다는 점 등의 임의표집 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설문지는 학령기 450부, 성인기 550부, 총 1,000부를 우편, 이메일, 인편을 통해 배포하였고, 724부를 회수하여 회수율은 72.4%로 나타났다.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답변이 불성실하거나 무응답이 많아 분석이 어려운 117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607부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 1) 발달장애인 부모의 인구학적 특성

연구에 참여한 발달장애인 부모의 인구학적 특성별 빈도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질문에 응답한 발달장애 자녀의 부모는 여자가 534명(86.4%)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연령별로는 만40세~만50세 미만이 328명(54.0%)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력별로는 대학 졸업자가 255명(42.0%)으로 가장

많았고, 가족 전체의 수입은 100만원~200만원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1> 발달장애 자녀 부모의 인구학적 특성

항목	구분	N	%
성별	남	83	13.7
	여	524	86.3
연령	만40세 미만	48	7.9
	만40세~만50세 미만	328	54.0
	만50세~만60세 미만	194	32.0
	만60세 이상	37	6.1
학력	중졸이하	39	6.4
	고졸	202	33.3
	전문대졸	69	11.4
	대졸	255	42.0
	대학원 이상	37	6.1
	기타	5	0.8
가족 전체 수입	100만원 미만	28	4.6
	100~200만원	144	23.7
	200~300만원	127	20.9
	300~400만원	116	19.1
	400~500만원	94	15.5
자녀 연령	500만원 이상	98	16.1
	학령기	279	46.0
계	성인기	328	54.0
		607	100

## 2. 조사 도구

이 연구는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현황 및 운영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을 연구대상에 포함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연구보고서(김기룡 외, 2014; 김주영 외, 2013; 김호연 외, 2014; 송소현 외, 2011; 윤점룡 외, 2010 등)와 학위논문(김두영, 2013; 김미란, 2013; 김성수, 2010; 박선향, 2010; 유명해, 2009; 장미숙, 2014; 전명수, 2012; 정경태, 2012; 노종채, 2007; 한명주, 2012; 한승진, 2009), 학술논문(김경열, 2012; 박승희, 2004; 백종남,

## 6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7권 4호)

2015; 윤점룡 외, 2010) 등 다양한 발달장애인 관련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연구 목적에 맞게 문항을 도출하고 1차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설문지 개발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 전공 교수 3명과 발달장애인 부모 2명을 대상으로 연구 목적과 문항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자문을 받고, 자문 결과를 반영하여 설문 문항을 수정·보완하였으며 수정·보완된 설문지는 서울지역 발달장애인 부모 1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설문 문항을 도출하였다. 전체 설문 문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전체 설문 문항의 구성

구분	내용	문항 수
보호자의 인구학적 특성	성별, 연령, 학력, 수입	4
장애자녀의 인구학적 특성	대상, 성별, 연령, 장애유형, 장애등급	5
프로그램 이용 현황(성인기)	이용여부 및 이용한 기관과 프로그램	4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요구	운영 기간, 주당 횟수, 운영 시간 등	5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해결과제, 부모의 요구	2
계		20

전체 20개의 설문 문항 중 프로그램 이용 현황의 4개 문항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경험이 있는 성인기 발달장애인 부모만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학령기 발달장애인은 성인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이 당연히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프로그램 이용현황에 관한 4개의 문항을 제외하고 설문을 요청하였다.

### 3. 연구 절차

먼저 연구자들의 협의를 통해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고 평생교육 관련 문헌들을 고찰하고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1차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설문지는 자녀의 연령이 학령기인 경우와 성인기인 경우로 나누어 개발하였으며, 학령기 설문 문항은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요구와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성인기 설문 문항에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현황에 관한 문항을 추가하였다.

이후 장애인 평생교육 전공 교수와 발달장애인 부모의 자문을 거쳐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였고, 본 설문을 실시하기 전에 발달장애인 부모 10명을 대상으로 5월 초 2주간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질문이 모호하거나 설문 작성자로

하여금 혼란을 줄 수 있는 문항 등에 대한 견해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본 설문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지역의 발달장애인 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2015년 6월부터 7월까지 2개월간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의 절차 및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연구의 절차 및 연구 내용

연구 일정	연구 절차	연구 내용
2015년 4월	문헌고찰 및 선행연구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선행연구 분석</li> <li>·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검토</li> </ul>
5월	조사도구 개발 및 연구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현황 및 요구에 관한 설문지 개발</li> <li>·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조사도구 보완</li> <li>· 예비설문조사(발달장애인 부모 10명)</li> </ul>
6월~7월	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집단: 학령기, 성인기를 구분하여 발달장애인의 주보호자(부모)</li> <li>· 지역: 서울특별시</li> <li>· 배포수: 학령기 450부, 성인기 550부, 총 1,000부(724부 회수, 회수율 72.4%)</li> </ul>
8월~12월	결과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현황에 관한 결과 분석(성인기)</li> <li>·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요구 결과 분석</li> <li>·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li> </ul>

#### 4. 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 19.0 ver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성인기와 학령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요구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 $\chi^2$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은 내용별로 기술하여 제시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현황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현황은 연구에 참여한 전체 발달장애인 부모 607명 중 평생교육 대상인 성인기 자녀를 둔 부모 328명의 응답을 바탕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여부 및 비참여 이유, 이용한 평생교육 기관 및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조사·분석하였다.

#####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여부

고등학교 또는 전공과 졸업 이후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경험 여부 (N=328)

영역	구분	n	%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경험	있다	181	55.2
	없다	147	44.8
계		328	100

성인기 자녀를 둔 부모 328명 중 자녀가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81명(55.2%)으로 나타났으며,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147명(44.8%)으로 나타났다.

#####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비참여 이유

성인기 자녀를 둔 부모 328명 중 자녀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147명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알아본 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정보부족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4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제공기관의 부족이 29.9%, 장애 정도가 심하여 기관에서 받아주지 않아서가 1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 실태를 조사한 선행연구들 역시 장애인들이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대부분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부족,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기관의 부족, 그리고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 등을 이유로 꼽고 있어 이번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표 5>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영역	구분	N	%
평생교육 프로그램 비참여 이유	정보 부족	61	41.5
	제공기관 부족	44	29.9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 및 내용부실	8	5.4
	프로그램 제공자의 전문성 부족	2	1.4
	이용비용 부담	3	2.0
	편의시설 부족 및 이동의 어려움	3	2.0
	기관의 거부	15	10.2
	필요성 인식 부족	7	4.8
	기타	4	2.7
	계		147

### 3) 이용한 경험이 있는 평생교육 제공기관

한편 평생교육 참여 경험이 있는 181명의 성인기 부모를 대상으로 이용한 경험이 있는 평생교육 기관을 다중응답으로 조사·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6>과 같이 장애인복지관이 145명(68.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장애인단체 21명(10%), 장애인 직업재활기관 12명(5.7%), 지역사회 평생학습관 7명(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전히 발달장애인의 평생학습이 주로 평생교육 전문기관이 아닌 장애인복지 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10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7권 4호)

<표 6>                   이용한 경험이 있는 평생교육기관 (다중응답)                   (N=193)

영역	구분	n	%
이용한 평생교육기관	장애인복지관	145	68.7
	장애인야학	0	0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3	1.4
	지역사회 평생학습관	7	3.3
	장애인 직업재활기관	12	5.7
	특수교육지원센터	5	2.4
	장애인단체	21	10
	기타	18	8.5
계		193	100

4) 이용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금까지 이용한 경험이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체계(김두영, 2013)를 바탕으로 6대 대영역 및 18개 중영역으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며, 응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대표적인 프로그램의 예를 함께 제시하였다. 먼저 6개 대영역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의 <표 7>과 같다.

<표 7>                   이용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대영역 (다중응답)                   (N=543)

영역	구분	n	%
이용한 평생교육기관	기초문해교육	96	17.7
	학력보완교육	17	3.1
	직업능력향상교육	121	22.3
	문화예술교육	141	26.0
	인문교양교육	84	15.5
	시민참여교육	84	15.5
계		543	100

발달장애 성인들이 참여했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6개 대영역별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문화예술교육이 141명(26.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직업능력향상교육이 121명(22.3%), 기초문해교육이 96명(17.7%), 인문교양교육과 시민참여교육이 각각 84명(15.5%), 학력보완교육이 17명(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18개 중영역별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는 다음의 <표 8>과 같다.

<표 8>                      이용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영역 (다중응답)                      (N=442)

영역	구분	n	%
기초문해교육	한글문해 프로그램	40	9.0
	한글생활 문해 프로그램	26	5.9
	기초자립생활 프로그램	73	16.5
학력보완교육	초등학력보완 프로그램	11	2.5
	중등학력보완 프로그램	2	0.5
	고등학력보완 프로그램	1	0.2
직업능력향상교육	기초직업교육 프로그램	91	20.6
	전문직업교육 프로그램	37	8.4
	자격인증 프로그램	6	1.4
문화예술교육	여가스포츠 프로그램	52	11.8
	문화예술 향유 프로그램	49	11.1
	문화예술 숙련 프로그램	20	4.5
인문교양교육	사회재활 프로그램	5	1.1
	생활소양 프로그램	15	3.4
	인문학적 교양프로그램	1	0.2
시민참여교육	시민의식 프로그램	12	2.7
	시민역량 프로그램	0	0
	시민활동 프로그램	1	0.2
계		442	100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초직업교육 프로그램이 20.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기초자립생활 프로그램이 16.5%, 여가스포츠 프로그램이 11.8%, 문화예술향유 프로그램이 1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요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요구는 연구에 참여한 전체 발달장애인 부모 607명의 응답을 바탕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 유무에 상관없이 프로그램 운영기간 및 운영횟수, 프로그램 운영시간 및 프로그램 제공기관, 기대하는 프로그램 및 전문가로 나누어 각각의 요구를 조사·분석하였다.

### 1) 희망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기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1강좌의 운영기간은 어느 정도가 가장 바람직한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는 다음의 <표 9>와 같다.

<표 9> 희망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1강좌의 운영기간 (N=607)

영역	A	B	C	D	E	계	$\chi^2$	p
성인기 부모	6 (1.8)	39 (11.9)	71 (21.6)	191 (58.2)	21 (6.4)	328 (100)	9.061	.060
학령기 부모	9 (3.2)	23 (8.2)	70 (25.1)	170 (60.9)	7 (2.5)	279 (100)		
계	15 (2.5)	62 (10.2)	141 (23.2)	361 (59.5)	28 (4.6)	607 (100)		
설문 내용	A: 3개월 미만 C: 6개월~1년 미만 E: 기타			B: 3개월~6개월 미만 D: 1년 이상(계속)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희망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1강좌의 운영 기간은 1년 이상(계속)이라는 응답이 361명(59.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6개월~1년 미만이 141명(23.2%), 3개월~6개월 미만이 62명(1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개인별 맞춤 운영, 단기와 장기 병행,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학습자인 장애자녀의 의사 및 프로그램의 목표설정이나 프로그램에 따라서,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 등 다양한 답변이 나왔으며 성인기 부모와 학령기 부모 사이에 의견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 2) 희망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주당 회수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희망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주당 회수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의 <표 10>과 같다.

<표 10> 희망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1강좌의 주당 회수 (N=607)

영역	1회	2회	3회	4회	5회	기타	계	$x^2$	$p$
성인기 부모	23 (7.0)	74 (22.6)	102 (31.1)	20 (6.1)	97 (29.6)	12 (3.7)	328 (100)	20.794	.001
학령기 부모	6 (2.2)	94 (33.7)	77 (27.6)	20 (7.2)	80 (28.7)	2 (0.7)	279 (100)		
계	29 (4.8)	168 (27.7)	179 (29.5)	40 (6.6)	177 (29.2)	14 (2.3)	607 (100)		

부모들이 희망하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주당 회수는 3회라는 응답이 179명(29.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5회가 177명(29.2%), 2회가 168명(27.7%), 4회가 40명(6.6%), 1회가 29명(4.8%), 기타가 14명(2.3%)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제한을 두지 말고 프로그램에 따라 회수를 정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성인기 부모는 주당 3회를 가장 선호하는 반면, 학령기 부모는 주당 2회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 3) 희망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하루 운영 시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기관에서 프로그램의 하루 운영시간은 어느 정도가 가장 바람직한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 부모들이 희망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하루 운영시간은 5시간 이상이라는 응답이 261명(43.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4시간이 130명(21.4%), 2시간이 94명(15.5%)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인기 부모와 학령기 부모 사이에 의견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는 다음의 <표 11>과 같다.

<표 11> 희망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하루 운영시간 (N=607)

영역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이상	기타	계	$x^2$	$p$
성인기 부모	25 (7.6)	51 (15.5)	41 (12.5)	64 (19.5)	145 (44.2)	2 (0.8)	328 (100)	2.779	.734
학령기 부모	25 (9.0)	43 (15.4)	28 (10.0)	66 (23.7)	116 (41.6)	1 (0.4)	279 (100)		
계	50 (8.2)	94 (15.5)	69 (11.4)	130 (21.4)	261 (43.0)	3 (0.5)	607 (100)		

14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7권 4호)

4) 희망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기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은 어디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는 다음의 <표 12>와 같다.

<표 12> 희망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기관 (N=607)

영역	A	B	C	D	E	F	계	$\chi^2$	p		
성인기 부모	140 (42.7)	6 (1.8)	41 (12.5)	80 (24.4)	55 (16.8)	6 (1.8)	328 (100)	13.242	.021		
학령기 부모	130 (46.6)	10 (3.6)	33 (11.8)	40 (14.3)	63 (22.6)	3 (1.1)	279 (100)				
계	270 (44.5)	16 (2.6)	74 (12.2)	120 (19.8)	118 (19.4)	9 (1.5)	607 (100)				
설문 내용	A: 공적인 새로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										
	B: 대학부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										
	C: 관공서 및 주민자치센터 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										
	D: 복지관부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										
	E: 평생학습관 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										
	F: 기타										

부모들이 희망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기관은 공적인 새로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라는 답변이 270명(44.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복지관부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 120명(19.8%), 평생학습관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 118명(19.4%), 관공서 및 주민자치센터 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 74명(1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인기 부모와 학령기 부모 모두 공적인 평생교육시설을 원하고 있었으며, 성인기 부모는 학령기 부모에 비해 복지관내 평생교육시설을 희망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난 반면, 학령기 부모는 성인기 부모에 비해 평생학습관내 시설을 희망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5) 희망하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로 가장 적합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다중응답으로 알아본 결과는 다음의 <표 13>과 같다.

<표 13> 희망하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다중응답) (N=1,534)

영역	A	B	C	D	E	F	G	H	I	계
성인기	48	214	191	167	92	107	0	44	4	819
부모	(5.5)	(24.7)	(22.0)	(19.3)	(10.6)	(12.3)	(0)	(5.1)	(0.5)	(100)
학령기	52	178	168	109	113	91	4	42	0	715
부모	(6.9)	(23.5)	(22.2)	(14.4)	(14.9)	(12.0)	(0.5)	(5.5)	(0)	(100)
계	100	392	359	276	205	198	4	86	4	1,534
	(6.2)	(24.1)	(22.1)	(17.0)	(12.6)	(12.2)	(0.2)	(5.3)	(0.2)	(100)
설문 내용	A : 평생교육사			B : 장애인평생교육사		C : 특수교사				
	D : 사회복지사			E : 치료사		F : 직업재활사				
	G : 일반교사			H : 상담사		I : 기타				

부모들이 희망하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는 장애인 평생교육사라는 응답이 392명(24.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특수교사가 359명(22.1%), 사회복지사가 276명(17.0%), 치료사가 205명(12.6%), 직업재활사가 198명(12.2%), 평생교육사가 100명(6.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 또는 부모의 요구를 개방형으로 질문한 결과 다음과 같이 다양한 응답이 나왔다.

첫째, 발달장애 자녀의 부모들은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교육 욕구를 충족시켜주며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요구하였다. 또한 이러한 요구가 실현 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의 배치를 요구하였다.

-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었으면 합니다.
- 발달장애 성인에게 적합한 프로그램과 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성인 평생교육 전문인력 배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교육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 발달장애 평생교육 전문인력 배치와 개별 특성과 욕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16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7권 4호)

둘째, 발달장애 자녀의 부모들은 특히 중증장애인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기를 희망하였다.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이 우선적으로 교육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이들에 대한 교육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 발달장애 가족의 고충을 충분히 반영하여 중증장애인이 우선적으로 평생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중증장애인의 특성과 소질을 개발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 중증장애인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중증장애인들에게 적합한 평생교육 시스템을 마련해 주세요.

셋째,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책무는 국가의 의무라고 여기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발달장애인에게 평생에 걸쳐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주기를 요구하였다.

- 발달장애인들이 평생 동안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가족의 힘만으로 발달장애 자녀를 돌본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겨워요. 국가가 책임지고 부모 사후에도 끝까지 의지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기관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부모 사후에도 중증장애인이 끝까지 교육 받을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국가가 발달장애인 돌봄을 평생 동안 책임져 주어야 합니다.
-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책무는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발달장애 자녀의 부모들은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요구하였다. 또한 평생교육이 실제 취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회적응능력 및 직업능력향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요구하였다.

- 1대 1 개인별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 개개인의 전문적인 상담과 장애특성별로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면 합니다.
- 혼자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시고,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십시오.
- 인지능력과 사회적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맞춤형 교육과 눈높이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 직업능력향상교육으로 취업까지 가능했으면 합니다. 센터장과 실무자는 장애인을 사랑으로 교육하고 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다양한 직업군을 체험하고 실제 직업과 연계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다섯째, 기타 의견으로는 지역사회 주민에게 발달장애인 정보를 공유하고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과 장애인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었으며, 평생교육 이용 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시켜 주기를 바란다는 의견도 있었다.

## IV. 논의 및 제언

### 1. 논의

이 연구는 발달장애인들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지, 어떠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이용 현황과 향후 참여할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요구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제 이 연구의 주요 결과를 토대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발달장애 성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의 44.8%가 참여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고,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정보 부족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는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경우 이용한 경험이 있는 평생교육 기관을 조사한 결과 장애인복지관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주로 참여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기초 문해교육과 직업능력향상교육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지역 내 회관, 도서관, 박물관 등 지역 내 다양한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비교적 발달장애인이 쉽게 정보를 획득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이창호, 2013). 이에 반해 국내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지역 내 기관에서 운영되지 못하며, 적절한 방법의 정보제공을 하지 못하고 있다(조창빈, 2014). 이에 따라 발달장애 성인들은 정보부족을 이유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인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접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요청된다(김두영, 박원희, 2013). 이를 위해 교육부는 2011년부터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구축사업을 시행하여 시·도 단위의 평생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역 주민에게 프로그램 및 기관, 강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구축사업을 통해

## 18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7권 4호)

2016년 3월 현재까지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충북, 충남, 경북, 제주 등 11개 시·도에서 평생교육정보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전국 17개 시·도에 평생교육정보망을 모두 구축할 예정이다(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4). 하지만 이곳 정보망에 올라오는 프로그램 중 발달장애인 대상의 프로그램은 그 수도 극히 적을 뿐 아니라 별도의 분류체계를 갖고 있지 않아 발달장애 성인이 참여할 만한 프로그램을 검색하는 것도 쉽지 않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평생학습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장애당사자 및 가족들이 평생교육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국립특수교육원이 중심이 되어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나 이미 구축되어 있는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에 전국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탑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 역시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여기에는 장애유형별, 정도별, 연령별, 프로그램 영역별 내용에 대한 정보는 물론, 학습내용, 시설, 지도자, 교재, 각종 자격 등에 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둘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모의 요구를 조사한 결과, 성인기와 학령기 부모 모두 자녀가 1년 이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희망하는 주당 회수는 성인기 부모가 주당 3회, 학령기 부모가 주당 2회를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희망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하루 운영시간은 성인기와 학령기 부모 모두 5시간 이상을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희망하는 평생교육 제공기관은 성인기와 학령기 부모 모두 공적인 새로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희망하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로는 성인기와 학령기 부모 모두 장애인평생교육사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새로운 평생교육시설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하루 5시간 이상, 주 2회 이상 받기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발달장애인 부모의 상당수는 별도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설립을 요구하고 있었으나, 그 외에도 복지관부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19.8%), 평생학습관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19.4%), 관공서 및 주민자치센터 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12.2%)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사실 그 동안의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선행연구들(김기룡 외, 2014; 김호연 외, 2014; 송소현 외, 2011; 윤점룡 외, 2010 등)은 부모의 요구가 자녀의 장애종류 및 장애정도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적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 건립을 추진함과 동시에 기존의 장애인 관련기관들과 일반 평생교육기관이 본래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감독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지역 내 주민을 위한 회관 등의 시설이나 지역사회 4년제 대학 등의 고등교육기관에서 통합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Prince & Jenkins, 2005). 이는 발달장애인의 사회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구조이며, 지역사회 자원을 적절히 사용하는 좋은 예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와 같이 국내에서도 통합된 시설에서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 실현되어야 한다. 현재 각 구마다 장애인복지관이 설립돼 있고, 아직 부족하긴 하지만 전문가들이 상시 배치돼 있다(이미정, 2015). 이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들이 학교 졸업 이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이며, 동시에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향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받고 싶어 하는 기관으로 선호하고 있다. 한편 2014년 특수교육 실태조사(국립특수교육원, 2014)에서 장애인들이 이용한 평생교육기관을 살펴보면, 전체 장애인 이용 대상자 518명 중 시·도교육청 소속의 평생교육학습관을 이용했다는 응답이 116명으로 전체의 22.4%를 차지하였고, 장애인복지관 88명(17.0%), 장애인단체 43명(8.3%), 읍·면·동의 평생학습관 19명(3.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많은 장애인들이 지역에 있는 평생학습관이나 관공서 및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복지관에서 주로 중증의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일반 평생교육기관에서 경증의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모든 발달장애성인의 평생교육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 평생교육기관에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 인력을 양성·배치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 인력이란 장애인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업무를 수행할 뿐 아니라 장애특성에 맞는 교수·학습 지도 능력을 갖춘 자로 프로그램 개발 능력, 장애특성을 고려한 학습 정보 제공 및 상담 능력, 장애특성을 고려한 지역 내 타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능력, 행·재정 관련 실무 능력을 갖춘 자로 특수교사 또는 평생교육사 자격을 소지하고 평생교육 또는 특수교육 관련 연수 과정을 이수한 자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 인력의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학문적으로 정립되지 못한 상태이며, 인력양성을 위한 실천적 과제가 놓여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2015년 2월 ‘한국장애인평생교육·복지학회’가 창립되고 2016년 2월에는 학술대회에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제공인력에 대한 기준 마련을 위해 열린 토론의 장을 열었다는 것이다. 아무쪼록 관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국내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들의 학문공동체가 형성되고 전문성을 가진 장애인 평생교육 제공 인력이 양성되기를 기대해 본다.

셋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개방형으로 질문한 결과에서는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할 것과 이를 위해 전문적인 인력의 배치를 요구했고, 중증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과 이들에 대한 교육적 대책 마련, 제공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성 등을 요구했으며,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 향후 진로·직업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운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 20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7권 4호)

우수한 프로그램은 발달장애 성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유도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김두영, 2013). 특히 일본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인지적, 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학습 및 여가, 작업 및 취업 등 생애 전반에 걸친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내용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이창호, 2013). 하지만 그 동안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분야에서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은 주로 학령기의 장애학생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을 뿐 장애성인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장애인들은 그들의 생애단계별로 요구하는 교육내용이 다르다(정동영, 정동일, 정인숙, 2003). 유아기와 학령기에 중점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이 다르고, 학령기와 성인기에 요구하는 내용에 차이가 있다. 장애인의 생애단계별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의 차이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을 요구한다. 따라서 향후 발달장애 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적합화와 다양화를 위해서는 발달장애 성인의 생애단계별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고 다양한 종류 및 내용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해야 할 것이다(김두영, 김호연, 박원희, 2014).

또한 발달장애 성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라 할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은 교양교육과 전문교육의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평생교육은 항상 폭넓은 교양교육과 함께 직업과 직결되는 전문교육을 동시에 심화시켜나가는 것이다(김중서 외, 2013). 만일 어느 치우친 교육에 중점을 두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결코 올바른 교육을 받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전문교육은 풍부한 교양교육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질 때 심화될 수 있고, 교양교육은 전문교육이 전제가 될 때 비로소 넓어질 수 있다(김두영, 2015).

하지만 우리나라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장애인들의 요구와 평생교육의 통합성 원리를 무시한 채 제공되고 있다. 2014년 전국 규모로 실시된 특수교육 실태조사(국립특수교육원, 2014) 결과, 전국의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및 장애인 재활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518개 중에서 문화예술교육이 51.2%, 인문교양교육이 14.5%, 직업능력향상교육이 11.2%, 기초문해교육이 10.7%, 학력보완교육이 6.6%, 시민참여교육이 5.8%로 나타나 문화예술교육과 인문교양교육에 상당히 치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이 요구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부분의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및 장애인시설에서 제공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제한적인 이유는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김두영, 박원희, 2013). 또한 수요자의 요구보다 시설의 편의에 따라 교육내용을 선정하고, 다른 시설이 이미 제공에 성공한 내용이기 때문에 교육내용으로 선정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장애성인 교육내용이 단편적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김두영, 김호연, 박원희, 2014). 따라서 발달장애성인의

생애주기별 교육적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상응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개발해야 하며, 이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 2. 제언

지금까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를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실태 및 요구를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구축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논의를 통해 얻어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많은 발달장애인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정보를 원스톱으로 알 수 있는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물론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나 이미 구축되어 있는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에 전국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탑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 역시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여기에는 장애유형별, 정도별, 연령별, 프로그램 영역별 내용에 대한 정보는 물론, 학습내용, 시설, 지도자, 교재, 각종 자격 등에 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둘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별도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비용과 접근성을 고려해 볼 때 별도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건립함과 동시에 기존의 장애인복지관이나 일반 평생교육시설을 발달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감독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주로 중증의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일반 평생교육기관에서 경증의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모든 발달장애성인의 평생교육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 평생교육기관에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 인력을 양성·배치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장애영역 중 특히 중증장애인에 속하는 발달장애인에게는 이들에게 적합한 평생교육기관의 확대와 더불어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히 요청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서울시 발달장애인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연구 결과를 전체로 일반화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나, 2015년 11월부터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인력, 그리고 제공 기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올해부터 서울시 은평구와 노원구에

## 22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7권 4호)

건립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운영 방향에 대한 작은 지침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강동선, 신진숙 (2015). 성인발달장애인 직업중심 평생교육 모델에 관한 기초연구. **발달장애연구**, 19(1), 1-22.
- 강순원, 김윤태, 김정환, 박경석, 이미정 (2011). **서울형 장애성인 평생교육 운영 모형 개발**. 서울:서울특별시교육청.
- 곽승철, 임경원, 노진아, 이유리 (2010).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충남: 충청남도교육청.
-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4). **2013 평생교육백서**. 서울: 저자.
- 국립특수교육원 (2014). **2014 특수교육 실태조사**. 아산: 저자.
- 기영화 (2001).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서울: 학지사.
- 김경열 (2012). 발달장애 아동의 학령기이후 교육 참여에 관한 학부모심층면담. **발달장애연구**, 16(2), 1-21.
- 김기룡, 김치훈, 윤진철, 이해영 (2014). **장애성인을 위한 대학중심 평생교육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서울: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 김두영 (201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체계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두영 (2015).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선행연구 고찰. **장애인 고등교육 연구**, 1(1), 21-41.
- 김두영, 김호연, 박원희 (2014). 장애인복지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설정향성 분석. **특수교육학연구**, 48(4), 364-387.
- 김두영, 박원희 (201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체계 개발 기초연구. **특수교육학연구**, 48(2), 245-271.
- 김미란(2013). 노년기 평생교육 참여 동기 및 만족도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서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 김성수(2010).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이용자의 평생교육연구. 석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
- 김정재, 이상로, 송민경, 구미영, 도지영, 서은경, 최복천, 김기룡 (2009). **경상남도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 김주영, 김두영, 정희섭, 한경근, 홍석의 (2013). **대학기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모형개발**. 평택: 국립한국복지대학교.
- 김진화 (2001) **평생교육 프로그램개발론**. 서울:교육과학사.
- 김호연, 김두영, 홍재영, 김해동 (2014). **시각중복장애학생 고등 평생교육 기반 구축방안 연구**. 세종: 교육부.
- 노종채(2007) 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 박선향(2010). 고등교육 소외계층의 평생학습참여 영향요인에 관한 구조모형.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 박승희(2004).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인교육 프로그램의 개관 및 효과. **특수교육학연구**, 39(1), 39-75.
- 백중남(2015).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특수교학교 학부모의 요구 분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6(3), 407-427.
- 송소현, 김영미, 김영표, 나홍주, 박재국, 정해동 (2011). **특수학교 기반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지원 모형 개발**. 아산: 국립특수교육원.
- 양수산, 김완진 (1998). **개정판 법학통론**. 서울: 세창출판사.
- 유명해 (2009). 발달장애인 고등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부모의 인식 연구: 대학 내 중등교육 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점룡, 양종국, 원성옥, 강병호, 정인숙 (2010). 성인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모형 연구. **특수교육학연구**, 17(2), 3-141.
- 이미정 (2015). 이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피맺힌 절규. **함께걸음** 2015년 5월호. 서울: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이창호(2013). **대학기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모형 개발**. 평택, 한국복지대학교.
- 장미숙(2014). 성인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한 욕구분석.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 전명수(2011). 노인 평생교육 참여 동기유형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 정경태(2012). 장애인 평생교육의 실태 및 지원 요구.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동영, 정동일, 정인숙(2003).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의 요구분석을 통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방향 탐색. **특수교육**, 2(1), 5-35.
- 정인숙, 김현진, 김형일, 정동영, 정희섭 (2005).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아산:국립특수교육원.
- 조창빈 (2014). 장애인 평생교육 여가활동 프로그램 기획과정 분석.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명주(201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교육대학원.
- 한승진(2009). 대학평생교육학습자의 학습참여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 Prince, D., & Jenkins, d(2005). Building pathways to success for low-skill adult students: Lessons for community college policy and practice from a statewide longitudinal tracking study. *Community Clllege Research Center 25*, 1-4.

## Lifelong Education Program Use Status by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Analysis on Requirements

Cho, Chang-Been · Kim, Doo-Young

Dankook University · Dankook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how much the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re using the lifelong education program, what programs are being used, the use status, and the requirements on the management of lifelong program that will be participated in the future to provide basic data that will help develop policies regarding lifelong education for the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For this purpose, survey analysis was performed on the survey result participated by 607 parent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living in Seoul, and the main results are shown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investigating on the use of lifelong education program on parents of children in their adulthood, 44.8% responded to have no experience in use to be close to 50%. the reason for nonparticipation, the most response was lack of information, and in the case of responding to have experience in using the lifelong education program, it was shown that arts and culture education and basic literacy education were mostly received in a rehabilitation center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equirements on the operation of lifelong education program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most preferred requirements were more than 1 year in operation period, 3 times in sessions per week and more than 5 hours in the daily operating hours, and the most preferred institution was the lifelong education facility for the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ird, regarding the activation plan of the lifelong education program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developing and providing various programs for type and level of disabilities, and arranging professional staff were required. Also, to manage the curriculum for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and providing educational counterplan for them, and maintaining lifelong education program continuedly provided were preferred. Based on the above results, the construction plan for lifelong education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as discussed.

**Key Words** :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Lifelong education for the disabled, Requirement analysis

---

논문 접수: 2016. 06. 05 심사 시작: 2016. 06. 10 게재 확정: 2016. 08. 23